

2018 헬리코박터 Update

성균관대의대 이준행

감염 경로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알려진 감염경로는 (1) 구강대 구강 감염, (2) 항문대 구강 감염, (3) 식수를 통한 감염, (4) 동물을 통한 감염, (5) 의료 행위를 통한 감염 등이 있다. 구강대 구강 감염은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전염시키는 수직전염 방식으로, 대부분이 2-6세 이전에 일어난다. 일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흔한 전염자는 엄마 >> 아빠 > 형제 > 유치원 선생님이나 친구였다.

제균치료의 적응증

그간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생각, 학회의 의견과 정부의 지침이 달라 혼선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 혹은 학회의 입장은 폭넓게 검사하고 폭넓게 치료하자는 것이었고, 정부에서는 치료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2009년과 2013년 대한헬리코박터 학회에서 전향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의 공인을 받지는 못했다.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학회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학회에서 제시한 가장 폭넓은 적응증에도 포함되지 않는 감염자(그냥 위암 예방을 위하여 치료받고 싶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헬리코박터 감염자를 치료하는 것

이 좋겠다는 주장이 그것인데 필자도 그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고시가 변경되었다. 2017년까지 정부에서는 위암과 소화성궤양에서만 치료를 인정하였고 기타 모든 경우는 불법이고 삭감 대상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헬리코박터 감염증 치료가 합법이 되었습니다. 단지 적응증에 따라 일반적인 보험 급여 혹은 100/100 급여(=약가 전액 본인 부담)로 나눌 뿐이지요. 학회의 적응증보다 정부의 적응증이 더 넓어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8년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관련 정부의 고시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 가. 소화성궤양
-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 3) 위축성 위염
-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확대된 적응증을 어떻게 임상에서 활용할 것인가?

필자는 2018년 발표된 정부의 방침에 찬성한다 (100/100 부분만 빼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된 모든 환자는 특별한 금기증이 없는 한 제균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젊은 사람에서는 위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년에는 위염이 줄어 위암 검진 내시경의 효과가 좋아질 수 있고, 고령에서는 다음 세대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다. 치료 적응증 부분은 임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 폭넓은 치료를 선택한 의사는 정부 방침을 따르면 되고, 다소 제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의사는 학회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

문제는 검사 적응증이다. "검진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야 하는가?"의 이슈이다. 2018년 2월 현재 필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암, 궤양, 단일 미란 등 뚜렷한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만 조직검사를 하고 헬리코박터 확인을 위한 universal 조직검사는 아직 그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